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 분석 : 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of Food Expenditures and Househol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For Urban Salary and Wage Earner Households

이 윤 금 · 양 세 정
상명대학교 소비자 · 주거학과

Lee, Yoon Geum · Yang, Se-Jeong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ood expenditures and househol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Data used were taken from the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revealed that total food expenditures for urban salary and wage earner households were 347,798 won, which accounted for 27.0 percent of the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food away from home expenditures marked for 8.4 percent of the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Household income, household size, age of household head,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education of household head, housing tenure, wife's employment status, gender of household head, and children's age were all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the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for urban salary and wage earner households.

I. 서론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통한 가계구매력의 증대는 가계소비지출의 양적 측면에서의 증가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소비지출의 규모측면에서의 증가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필수적 욕구충족을 대변하는 식생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계의 식생활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총소

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의 월평균식생활비는 74,700원으로 총소비지출의 42.9%였으며 1997년 현재 417,500원으로 28.7%이었다. 특히 외식비 부분의 변화는 현저하여 1980년에 월평균 3,100원이라는 미미한 지출수준에서 1997년에는 158,900원으로 총식생활비 중 38.1%에 이르는 급증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지출 중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젤계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식생활비의 세부비목인 외식비 지출은 규모나 지출구성비의 측면 모두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또

한 식생활비 내에서 주식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부식과 기호식품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가 완만하다(통계청, 1997).

이에 본 연구는 1996년 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근로자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식생활비의 추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식생활비의 세부비목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지출변화추이를 보이며, 이는 각 지출비목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비를 크게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식료품비를 다시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식생활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식생활비 지출 행태가 양적,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식생활비에 대한 여태까지의 연구결과는 미미하다. 지금까지의 식생활비 지출에 관한 연구는 대개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식생활비의 소비함수를 도출하거나 소득탄력성 산출 등에 중점을 두었다(김미향, 한재숙, 1978; 정용선, 1993). 반면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식생활비 규모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찰하고자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류병서, 1993; 문숙재, 정순희, 1995), 식생활비를 세부비목별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의 소득증대를 포함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함에 따른 식생활비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가계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가계특성의 변화에 따른 가계재무적 대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식생활비 소비예측에 사용함으로써 관련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의 표준생활비 또는 가구동등성지수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식생활비연구는 외국에서는 가정경제와 농

업경제분야에서 빈번히 다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가계를 조사단위로 하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Abdel-Ghany와 Schrimper(1978)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각 식품비목의 소득탄력성 및 주부교육년수의 탄력성을 비교하였다. 1965-66년 U.S.D.A. 가계식품소비조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가계소득과 더불어 주부교육수준에서의 차이가 가계의 식료품비 소비지출 구조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ster(1980)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계식료품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80-81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이후 CEX)자료를 사용하여 식료품의 세부항목들에 대해 주부연령, 인종, 취업상태, 가구원 수, 거주지역을 조절한 상태에서의 소득과 교육수준의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외식이 0.51, 가정내식료품이 0.15의 소득탄력성을 보였으며, 교육수준탄력성의 경우도 외식이 0.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일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달걀과 우유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이 도리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xelsson과 Penfield(1983)는 1978-79년 동안 조사한 인터뷰자료를 통해 은퇴한 독신 노인가계에 있어서의 식료품의 중요성 및 식료품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식료품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독신 노인가계의 식료품소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교육년수와 소득이 식료품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교육수준은 외식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 두 변수는 가계의 식품비지출 중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가정내 식료품비 지출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Volker와 Winter(1989)는 1977-78년 U. S. D. A. 가계식품소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식료품가정생산, 식료품비지출 및 식료품적정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부부가

계의 경우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직장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구원 수는 식료품비 지출규모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Nayga(1995)는 1992년 CEX 자료를 사용하여 육류와 어개류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그는 특히 계절적 변수를 관련요인으로 고려하였는데 연구결과 일년 중 10-12월 사이에 육류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 연령, 가계소득 및 가족원수는 육류지출규모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개류의 경우 비백인, 북동부지역 가계가 지출이 많았으며, 교육 및 소득수준과 어개류지출규모와 정(+)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육류에 대한 지출은 소득변화 보다 가구원 수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였으며, 반면 어개류에 대한 지출은 소득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였다.

Nayga(1995)의 이후 연구는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가정내 식료품과 외식비지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10-12월 사이에 가정내 식료품지출이 많았으며, 소득, 가구주 및 배우자취업상태, 자녀존재, 가구원 수, 연령, 교육수준 등이 가정내 식료품지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의 경우 가계소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았으며, 가구원 수와는 부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밖에 12세 이상의 자녀존재, 자가소유여부, 가구주의 취업상태 등이 외식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연구들은 소비지출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식료품비 지출의 영향요인에 관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1972-7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탄력성 및 가구원 수 탄력성을 분석한 Douglas(198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내 식료품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0.256으로 낮았으며 반면 외식의 경우

1.433으로 소위 선택재적 영역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탄력성은 가정내 식료품지출의 경우 0.711인데 반해 외식비지출은 -0.363으로 나타나 가구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외식비지출은 도리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비 지출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적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소비함수를 구하거나 또는 소비함수 추정시 소득과 식생활비지출에 로그를 취함으로써 소득탄력성을 구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김미향과 한재숙(1988)은 1975~1985년 동안 소득의 변화에 따른 식료품비 소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식비 소비수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 1계층(가처분 소득이 112,738원인 가계)에 비해 소득 5계층(가처분 소득이 885,783원인 가계)의 지출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은 외식비로 2.43배였으며, 그 다음이 육류로 1.53배, 과일 1.39배, 유란 1.32배의 순이었다. 반면에 소득 1계층에 비해 소득 5계층의 지출구성비가 적은 품목은 곡류와 채소·해초·유지·조미료 등의 부식이었다. 소득수준과 육류·유란·채소, 과일, 외식, 유지 및 조미료 빵과자 음료의 소비지출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연수, 한재숙, 김정숙(1990)은 소비지출 항목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Engel Curve를 도출, 비교하였다. 이들은 1970년에서 1984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식료품비의 경우 소득의 정의에 따라 0.5-0.605정도의 소득탄력성이 나타났으며, 반면 외식비는 1.666-1.925의 높은 수치의 소득탄력성이 산출되었다.

정용선(1993)은 도시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75-90년간 소득향상에 따른 식료품비의 변화를 세부비목별로 분석하였다. 이 기간 중 소득 증가율보다도 큰 증가율로 지출이 증가한 품목은 음료와 외식이었고, 식료품비 중에서 곡류의 구성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

력성에 있어서 총식료품비의 경우는 0.576으로서 식료품이 필수품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곡류의 소득탄력성은 -0.076으로 나타났다. 육류는 소득탄력성이 0.899로 육류 수요량은 소득의 영향이 타식료품에 비해 크나 1 보다는 작았다. 유지 및 조미료도 소득탄력성 0.393으로 필수품 적인 특성을 가지고, 과자류도 0.468로 나타났으나, 외식의 소득탄력성은 1.387로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류병서(1993)는 가계소비지출 중 외식비 지출에 초점을 두고, 도시가계연보의 1981-1991년간 11개년의 시계열자료와 분기별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식과 소득과의 관계는 정으로 나타나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비성향은 0.0330으로 소득이 100원 정도 증가하면 외식은 3.3원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과 가구당 인구수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회귀계수는 5.9091로 추정되어 소득이 100원 정도 증가하면 외식은 59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과 가구당 취업자수와 의 관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많으면 외식비 지출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외식비 지출액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5519로 추정되어 소득이 10%정도 증가하면 외식비 지출은 5.5%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횡단면자료를 사용한 소비지출연구들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지출비목별로 분석하면서 식생활비 항목을 다루었다. 김기옥과 이승신(1990)은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료품비는 경기전망이 좋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족생활주기가 후반기일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부가 취업을 한 경우는 식료품비 지출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숙재와 정순희(1995) 역시 서울시 일부지역 자료를 대상으로 편모가족과 양부모가족간의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식생활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들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정내 식료품과 외식은 모두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외식은 자가를 소유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들이 고려한 가족크기,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 가계의 특성변수들은 가정내 식료품과 외식비 지출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련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계의 식생활비지출은 가계소득과 가구원 수가 가장 주요한 관련요인이었으며, 이 밖에 교육수준, 나이 또는 가정생활주기, 자가소유상태, 거주지역, 주부취업여부 또는 취업자 수, 자녀 존재, 경기전망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원 수, 주부취업여부변수, 자녀 존재변수 등은 가정내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별도로 살펴볼 때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보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근로자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로자 가계의 식생활비의 지출규모와 총소비지출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식생활비의 지출액은 얼마이며, 가계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식생활비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한가?

2. 분석모델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식생활비 = f(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자가소유여부, 주택자금상환여부, 거주지역, 주부취업여부, 가구주성별, 미취학 자녀 유무, 중고생자녀 유무)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는 6개의 식생활비 비목별 가계의 월평균 지출액이었다. 먼저 총식생활비를 분석하며, 이는 다시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식료품비는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비 등 3개의 세부비목으로 나누어져 별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도시가계연보자료 분석시 식료품에 관해 적용하는 중분류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식생활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로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자가소유여부, 주택자금상환여부, 거주지역, 주부취업여부, 가구주 성별, 미취학 자녀 유무, 중고생자녀 유무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료의 제공여

부에 따라 조절되었다.

식생활비의 지출은 다른 지출비목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구매력을 제공하는 가계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계소득은 가계의 모든 소득원천에서 들어오는 월소득을 의미하며, 선행연구결과(정용선, 1993; Abdel-Ghany & Schrimper, 1978)에 비추어볼 때 가계소득과 식생활비지출간의 관계가 비선형관계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계소득 및 가계소득제공 두 형태로 사용하였다.

가구원 수 또한 가계의 식생활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구원 수가 소비지출 변화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밝혀왔다(Dardis의 2인, 1981; Lee & Phillips, 1971; Forsyth, 1960; Ritzmann, 1982).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식생활비지출이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계소득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에 의해 식생활비지출간의 관계도 비선형관계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수제공 두 형태로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가계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계의 인구사회적 변인으로 가구주의 연령을 포함시켜 왔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연구들이 가구주 연령을 가족생활주기변인 대용으로 사용해왔듯이(Chen & Chu, 1982; Foster, 1980) 본 연구에서도 가구주 연령 변수를 분석모델에

<표 1> 종속변수의 구체적 정의

종속 변수	정의
총식생활비(Y)	$Y = (\text{식료품비}) + (\text{외식비})$
식료품비(Y1)	$Y1 = (\text{주식비}) + (\text{부식비}) + (\text{기호식품비})$
주식비(y1)	y1 = 곡류 및 식빵
부식비(y2)	y2 =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조, 유지, 조미료
기호식품비(y3)	y3 = 과실, 빵, 과자류, 음료, 주류
외식비(Y2)	$Y2 = \text{식사, 학교급식, 음주대}^*$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분류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외식의 경우 원자료상 음주대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 항목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포함하였다.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의 4개의 연령집단을 의미하는 가변수로 포함시켰고, 비교집단으로 20대가계를 정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은 가계의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계소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 역시 식료품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구주직업은 통계청의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관리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기타로 나누었는데, 관리전문직은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교육 및 연구전문가 등을 포함하며, 준전문직은 엔지니어, 생명과학 및 보건준전문가, 교육준전문가(예를 들면 초등학교교사) 등을 포함한다, 비교집단은 노무직/기타로 정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교육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해왔으며 (Abdel-Ghany & Schrimper, 1978; Dardis 외 2인, 1981) 따라서 4개의 가변수로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으로 포함시켰고 비교집단은 중졸이하의 집단으로 하였다.

자가소유의 여부에 따른 가계의 식료품 소비지출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자가소유인가 임대하여 사는가를 나누어 두 집단을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비교집단은 임대집단으로 하였다. 가계의 자가소유여부는 가계자산규모를 대변하기도 하며, 동시에 임대가계의 경우 향후 자가마련을 위해 가계소득 중 저축에 할당하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소비지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택관련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그렇지 않은 가계와 다른 가계소비지출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출금상환중인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로 나누어 비교집단은 상환 중인 주택관련대출금이 없는 가계로 하였다.

해당가계가 어느 정도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하느냐 하는 것은 가계의 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가계소비지출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한 영향력은 선행연구들(Dardis 외 2인, 1981 ; Lee & Phillips, 1971)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또한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주식, 부식을 중심으로 식품들을 자가공급하거나 또는 무상제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비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광역시, 중소도시 거주자들간의 식생활비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비교집단은 중소도시 거주자로 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취업하는 가계는 부인이 취업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외식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rdis et al., 1981; Foster 외 2인, 1981). 이는 부인취업에 따라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에 대한 투자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의 취업여부를 가변수로 하여 비교집단을 부인이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문숙재와 정순희(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식생활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성가장 가계와 여성가장 가계의 식생활비지출에 대해 비교하고자 변수로 포함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 여성가장 가계를 정하였다.

가구원 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특정연령 자녀의 존재는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녀연령에 따라 식생활비의 세부비목별 수요가 다를 것이며, 또한 교육비 등 여타지출항목의 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식생활비에 대한 예산할당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취학 자녀의 존재유무에 따라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식생활비에 대한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기인 경우 성장기에 요구에 따른 식료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고생자녀가 없는 가계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이들과 중고생자녀가 있는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실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

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는데, 통계청에서 5년을 단위로 실시하는 본 자료는 전국 비농가를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 연간소득, 저축부채, 내구재보유현황 등 가계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관한 종합적 자료이다. 분석대상가구는 주요지표에 따라 층화추출한 30,000가구를 목표로 하였으며, 가계수지부분은 10월과 11월 동안 가계 부기장방식으로 기록하고 그 밖의 자료는 면접 타계식으로 조사하였다(통계청, 1997). 최종적으로 24,290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는데, 이 중 단독가구를 제외하였으며, 또한 소득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근로자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대상은 12,323가구였다.

(2)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대상가계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식생활비의 세부비목별 월평균 지출액과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가계특성에 따른 식생활비 지출규모를 산출하고 이들 산출된 집단별 월평균지출액의 차이검증을 하기 위하여 분산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 가계특성이 식생활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분석에 포함되는 종속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SAS PC program에 의해 이루어졌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가계의 특성

분석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대상가계의 평균 가계소득은 194만원이었다. 가계소득의 최상위 20% 집단은 월평균소득 225만원 이상이었으며, 최하위 20% 집단은 117만원 미만인 가계가 이에 해당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이었고, 이 중 4인가계가 38.9%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평균연령

<표 2> 분석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n=12,323)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소득	평균(SD)	194만원 (109만원)		가구주 직업	전문직	1,189	9.7
	<117만원	2,451	19.9		준전문직	1,520	12.3
	<154만원	2,457	19.9		사무직	1,901	15.4
	<193만원	2,479	20.1		서비스직	1,004	8.2
	<225만원	2,460	20.0		노무직/기타	6,709	54.4
	≥225만원	2,476	20.1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3,486
평균(SD)	3.6명 (1.1명)		고졸	5,343		43.3	
2인	2,199	17.8	전문대졸	869		7.1	
3인	3,134	25.4	대졸	2,248		18.2	
4인	4,790	38.9	대학원	377		3.1	
가구원 수	5인	1,515	12.3	거주지역	서울	1,599	13.0
	6인이상	685	1.4		광역시	5,066	41.1
	평균(SD)	40.7세 (10.8세)			중소도시	5,658	45.9
	가구주 연령	30세미만	1,884	15.3	자가보유가계	6,361	51.6
		30~39세	4,471	36.3	주택대출상환가계	2,299	18.7
		40~49세	3,151	25.6	맞벌이가계	3,972	32.2
50~59세		2,127	17.3	남성가장가계	10,900	88.5	
60세이상		690	5.6	미취학 자녀 있는 가계	1,943	15.8	
				중고생자녀 있는 가계	3,129	26.1	

〈표 3〉 세부비목별 월평균 지출액 및 구성비

비 목	지 출 액	지출액/총소비지출	지출액/총식생활비
총 식생활비	347,798	27.0	100.0
○ 식료품	239,829	18.6	68.9
- 주식	(53,093)	(4.1)	(15.2)
- 부식	(116,683)	(9.1)	(33.7)
- 기호식품	(70,054)	(5.4)	(20.0)
○ 외 식	107,969	8.4	31.1

은 40.7세이었는데, 특히 3, 40대가 많았다. 가구주 직업을 보면 노무직/기타가 절반 이상(54.4%)이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15.4%, 준전문직 12.3%, 전문직 9.7%, 서비스직 8.2%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 28.3%, 대졸 18.2%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45.9%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는 41.1%, 서울은 13.0%이었다. 자가보유가계는 41.5%이었고, 18.7%가 주택대출금을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계는 32.2%, 남성가장가계는 88.5%였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계는 전체의 15.8%, 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계는 26.1%이었다.

2. 식생활비의 세부비목별 지출규모 및 구성비

〈표 3〉은 분석대상가계의 식생활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월평균지출액과 지출구성비를 나타낸다. 이들은 식생활비로 월평균 347,798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식료품비로 월평균 239,829원, 외식비로는 107,969원을 지출하였다. 즉 외식비가 총식생활비의 31.3%를 차지하는 셈이다.

소위 엔겔계수라 일컬어지는 총소비지출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0%였으며, 18.6%가 식료품비, 8.4%가 외식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료품비 중에서는 부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총소비지출의 9.1%), 기호식품(5.4%), 주식비(4.1%)의 순으로 예산이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비 내에서 예산할당형태를 살펴보면, 부식에 총식생활비의 33.7%를, 기호식품에 20.0%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의 15.2%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3.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비 지출규모

〈표 4〉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비 지출규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이다. 식생활비 세부비목들은 가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자가소유, 주택자금 상환여부, 거주지역, 주부취업 여부, 가구주 성별, 미취학 자녀, 중고생자녀 등 고려된 모든 가계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폭이 가장 큰 비목은 외식비로 월가계소득이 117만원 미만인 최저소득가계집단의 월평균지출액이 52,856원인데 비해, 225만원 이상인 최고소득가계집단은 이의 3.74배에 해당하는 197,939원을 외식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이면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없는 주식비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2인가계가 36,935원 지출하는데 비해 6인이상가계는 90,958원을 지출하였다. 외식비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출규모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증가폭은 여타 식생활비 비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상 가구원이 가장 많고 식품소비가 많은 청소년자녀들이 많은 시기에 예상되는 50대가계가 식생활비 지출이 많은 408,536원을 매월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은 40대가계였다. 세부비목별로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노인가계인 60대이상가계

<표 4>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별 식생활비 지출규모

변수	구분	식생활비	식료품비	주요식품비			외식비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	
가계 소득	<117만원	231,811	178,954	45,243	83,347	50,364	52,856
	<154만원	287,438	210,802	47,571	101,085	62,146	76,636
	<193만원	329,398	234,323	50,316	115,448	68,559	95,975
	<225만원	375,836	259,225	55,697	127,836	75,692	116,611
	≥225만원	513,077	315,137	66,535	155,314	93,289	197,939
F 값		861.16**	458.46**	80.37**	445.5**	291.25**	540.11**
가구원 수	2인	252,022	164,831	36,935	75,459	52,438	87,191
	3인	326,425	218,119	47,345	106,950	63,824	108,306
	4인	366,036	256,736	53,498	127,516	75,722	109,300
	5인	411,676	293,952	70,036	142,967	80,949	117,724
	6인이상	484,235	341,999	90,958	159,658	91,384	142,236
F 값		274.92**	470.72**	250.28**	416.61**	160.76**	29.00**
가구주 연령	20대	266,045	167,986	32,785	82,560	52,641	98,060
	30대	329,097	228,044	43,352	115,237	69,455	101,053
	40대	378,349	271,436	64,025	130,641	76,770	106,913
	50대	408,536	276,848	69,993	130,637	76,218	131,687
	60대이상	365,449	253,909	69,637	112,456	71,815	111,540
F 값		158.47**	274.50**	286.65**	182.51**	86.46**	24.42**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478,032	300,377	58,666	151,953	89,758	177,655
	준전문직	387,138	248,451	46,234	126,869	75,348	138,686
	사무직	356,316	235,537	47,342	118,895	69,300	120,778
	서비스직	293,535	200,320	42,647	98,498	59,175	93,214
	노무직/기타	321,512	234,274	56,851	110,218	67,205	87,237
F 값		192.54**	98.75**	42.06**	124.85**	73.23**	168.84**
가구주 교육 수준	중졸	317,191	234,259	62,769	106,009	65,481	82,932
	고졸	334,006	232,155	49,874	114,206	68,075	101,851
	전문대졸	333,300	225,455	44,360	114,338	66,758	107,844
	대졸	404,788	259,144	48,455	132,551	78,138	145,644
	대학원이상	519,873	318,062	57,022	161,258	99,782	201,811
F 값		143.77**	58.18**	56.49**	95.85**	62.74**	140.15**
자가 보유	무	305,826	207,994	42,047	102,627	63,319	97,862
	유	387,110	269,668	63,446	129,856	76,367	117,441
F 값		517.11**	771.73**	675.48**	512.12**	229.52**	72.76**
주택자금 상환	없음	340,899	234,934	52,578	113,791	68,566	105,964
	상환 중	377,882	261,174	55,339	129,291	76,544	116,708
F 값		57.30**	82.63**	6.15**	93.12**	51.12**	11.36**
거주 지역	서울시	408,899	258,635	51,438	128,526	78,671	150,264
	광역시	350,865	240,084	53,720	116,943	69,421	110,781
	중소도시	327,784	234,287	52,998	113,102	68,186	93,497
F 값		100.89**	22.62**	1.42	31.74**	29.77**	125.65**
주무 취업	비취업	338,230	236,604	52,182	115,376	69,046	101,626
	취업	367,914	246,610	55,007	119,429	72,174	121,304
F 값		57.11**	16.45**	9.50**	9.40**	11.11**	63.16**
가구주 성별	여성	246,659	172,405	44,645	77,956	49,803	74,254
	남성	361,002	248,632	54,195	121,738	72,698	112,370
F 값		692.22**	763.42**	70.56**	932.08**	451.99**	167.18**
미취학 자녀	무	348,833	238,621	54,658	115,309	68,654	110,211
	유	342,271	246,284	44,730	124,021	77,533	95,987
F 값		2.37	7.51**	209.23**	32.26**	373.25**	31.92**
중고생 자녀	무	332,281	224,435	47,281	110,020	67,134	107,846
	유	391,683	283,367	69,529	135,525	78,313	108,317
F 값		205.06**	457.96**	431.81**	308.00**	108.37**	0.036

* p< .05, ** p< .01

의 지출이 50대가계 다음으로 높았던 반면, 기호식품과 부식비지출은 40대가계의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가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계는 월평균 식생활비로 478,032원을 지출하며, 모든 식생활비 세부비목에서 지출규모가 타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준전문직, 사무직, 노무직/기타, 서비스직가계의 순이었다. 서비스직가계는 외식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지출규모가 가장 낮았다. 외식비 지출의 경우 노무직/기타가계는 월평균 87,237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관리전문직가계는 이의 2배에 해당하는 177,65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식생활 비목의 지출규모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 총식생활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중졸, 고졸, 전문대졸의 경우 317,191원에서 333,3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대졸가계는 404,788원인 반면 대학원이상가계는 519,873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원이상의 고학력가계의 과도한 외식비 지출에서 비롯되는데, 대학원이상의 가계는 외식비지출에 월평균 201,81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가계의 145,644원에 비해 거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계는 임대가계에 비해, 그리고 주택자금상환을 하고 있지 않은 가계는 자금상환이 있는 가계에 비해 각각 식생활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지출은 모든 식료품 비목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가 가장 많이 지출하였고,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 순으로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식의 경우는 거주지역에 따른 지출규모수준에 별차이가 없었으나, 부식과 기호식품의 경우는 서울지역이 여타 거주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지출을 하였고, 외식의 경우는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어 중소도시 거주가계의 93,497원에 비해 서울거주가계는 이의 1.61배에 해당하는 150,264원을 지출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식생활비 지출규모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취업주부가계가 비취업주부가계에 비해 모든 비목에서 약간 높았다. 외국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외식비와 주부취업여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주부가계의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은 121,304원인 반면 비취업주부가계는 101,626원으로 다소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식생활비 지출의 차이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가계는 월평균 246,659원을 식생활비에 지출함으로써 남성가장가계의 361,002원이었다. 또한 남성가장가계는 여성가장가계에 비해 모든 비목에서 높은 지출액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유무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료품비의 지출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높은 반면, 외식비지출은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값을 합한 총식생활비의 두 집단간 차이검정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고생자녀가 있는 가계는 부식, 기호식품, 그리고 외식 등 모든 식료품 비목에 있어서 중고생자녀가 없는 가계보다 지출이 많았다.

4.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식생활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식생활비 지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총식생활비의 경우 R^2 값이 0.39로 여타 지출비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사용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한 총식생활비의 설명력은 39.0%이었다. 식생활비의 세부비목들의 경우 R^2 값은 0.16(기호식품비)에서 0.30(식료품비)의 수치를 보였다.

먼저 가계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총식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 모두에서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제곱 둘 다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가계의 식생활비가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율로 늘어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총식생활비와 식료품비에서 가구원 수와 가구원 수 제곱의 변수가 각기 통계적으로

〈표 5〉 식생활비 지출의 관련요인 분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b (S.E.)

독립변수	총 식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
가계소득 (가계소득) ²	0.071217 (0.00323) ** 2.599E-9 (0.00000) **	0.031211 (0.00218) ** 4.697E-10 (0.000) **		0.040006 (0.00222) ** 2.129E-9 (0.000) **
가구원 수 (가구원 수) ²	46685 (6510.5) ** -2396 (787.9) **	40052 (4381.2) ** -1825 (530.2) **		6632 (4462.5) -571 (540.0)
가구주 연령: (20대) ^a				
30대	11074 (4813.2) **	19840 (3239.0) **		-8766 (3299.1) **
40대	46602 (5677.3) **	48333 (3820.5) **		-1731 (3891.4)
50대	66174 (5868.2) **	59313 (3948.9) **		6861 (4022.2)
60대이상	69154 (7752.7) **	65248 (5217.1) **		3906 (5313.9)
가구주직업: (노무직/기타)				
관리전문직	31472 (6661.8) **	8073 (4483.1) **		23399 (4566.2) **
준전문직	20942 (5377.9) **	-2533 (3619.1) **		23476 (3686.2) **
사무직	19575 (4809.8) **	143 (3236.7) **		19431 (3296.8) **
서비스직	1012 (5674.9)	-8169 (3818.9) **		9181 (3889.8) **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고졸	11654 (4095.4) **	6785 (2755.9) **		4869 (2807.1)
전문대졸	1276 (7122.8)	6656 (4793.3)		-5379 (4882.2)
대졸	22355 (6143.5) **	13506 (4134.3) **		8848 (4210.9) **
대학원이상	43070 (10407.3) **	22747 (7003.6) **		20323 (7133.4) **
자가소유: (임대) 자가	16167 (3381.6) **	18030 (2275.6) **		-1862 (2317.8)
주택자금상환여부: (무) 자금상환 중	-11383 (3944.6) **	-4510 (2654.5)		-6872 (2703.7) **
거주지역: (중소도시) 서울 광역시	57515 (4618.8) ** 26156 (3106.2) **	20218 (3108.2) ** 6463 (2090.3) **		37297 (3165.9) ** 19693 (2129.1) **
주부취업: (비맞벌이) 맞벌이	-35604 (3393.9) **	-27015 (2283.9) **		-8589 (2326.3) **
가구주성별: (여성가장) 남성가장	47171 (5086.4) **	36991 (3422.9) **		10180 (3436.3) **
미취학 자녀: (무) 미취학 자녀유	-12380 (3844.2) **	276 (2586.9)		-12657 (2634.9) **
중고생자녀: (무) 중고생자녀유	1026 (2655.6)	8810 (1787.1) **		-7783 (1820.2) **
상수항	-41827 (12775) **	-23385 (8597) **		-18442 (8756) **
F 값	327.9	217.4		198.7
R ²	.39	.30		.28

a : 괄호 안은 비교집단

* p < .05, ** p < .01

유의한 양(+)과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총식생활비가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증가하되 증가속도는 점차 감소됨을 의미한다. 반면 여타가계특성이 조절된 상태에

서 가구원 수는 외식비 지출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졌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식생활비와 식료품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식비의 경우는 30대가계가 20대가계에 비해 오히려 월평균 8,766원정도 적게 지출하였다. 이는 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자녀가 어린 시기인 30대가계의 경우 형성기인 20대보다 가정 밖에서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비스직과 전문직 가계는 노무직/기타가계에 비해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은 적었으나 외식비 지출은 많았다. 그러나 관리전문직가계는 식료품과 외식 두 비목 모두에서 노무직/기타가계 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식료품과 외식비에 대한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학원이상인 가계의 경우 중졸가구에 비해 식료품비에 있어 22,747원, 외식비에서 20,323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총식생활비와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이 임대한 가계보다 많았으나, 외식비지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택대출금을 상환 중인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양이 줄어들에 따라 총식생활비와 외식에 대한 지출이 대출금 상환이 없는 가계보다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자금에 지출하는 것은 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가져와 필수재적 성격의 식료품이나 선택재적 성격의 외식 모두에서 부적(-) 영향력을 미침을 시사한다.

중소도시 거주 가계에 비해 서울과 광역시 거주 가계는 총식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 등 모든 비목에서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식비지출에서의 차이가 컸다. 중소도시 거주 가계에 비해 광역시 거주 가계는 월평균 19,693원을 더 지출하며, 서울시 거주 가계는 월평균 37,297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취업에 따라 시간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적고 서비스로서의 외식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취업주부가계는 비취업주부가계 보다 식료품과 외

식에 모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가장가계는 여성가장가계보다 식료품과 외식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의 성인 남성의 존재가 식생활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 수가 조절된 상태에서 자녀의 연령이 어떠한가에 따라 식생활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연구결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총식료품 및 외식에 있어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필수재적 성격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크나 선택재적 성격의 외식에 대한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6>은 식료품비를 구성하는 3개의 소항목, 즉 주식, 부식, 기호식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해준다. 대부분의 가계특성들은 이들 식료품비 지출비목들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주택자금상환여부, 주거지역, 미취학 자녀 등의 경우 지출비목에 따라 다소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가계소득과 지출비목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식비와 기호식품의 경우 가계소득만이 유의하였고 가계소득제공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과 이들 두 비목과의 관계가 선형관계임을 시사한다. 반면 부식비지출은 가계소득과 가계소득제공 둘 다 (+)로 나타나 부식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와 가구원 수 제곱은 주식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식비와 기호식품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에 대한 지출은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율로 지출이 늘어

독립변수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비
가계소득 (가계소득) ²	0.00376 (0.00088) ** 1.122E-10 (0.0000)	0.01560 (0.00119) ** 3.342E-10 (0.0000) *	0.01185 (0.00090) ** 2.339E-11 (0.0000)
가구원 수 (가구원 수) ²	5353 (1774.0) ** 440 (214.7) **	26364 (2388.8) ** -1760 (289.1) **	8334 (1826.0) ** -504 (220.9) **
가구주 연령: (20대) ^a			
30대	2574 (1311.5) **	11875 (1766.0) **	5390 (1349.9) **
40대	13126 (1546.9) **	23323 (2083.1) **	11885 (1592.3) **
50대	20101 (1598.9) **	27686 (2153.1) **	11526 (1645.9) **
60대이상	26212 (2112.5) **	24755 (2844.3) **	14280 (2174.4) **
가구주직업: (노무직/기타)			
관리전문직	-2670 (1815.3)	8293 (2444.3) **	2450 (1868.5)
중전문직	-6328 (1465.4) **	3309 (1973.2)	485 (1508.4)
사무직	-3130 (1310.6) **	3812 (1764.8) **	-537 (1349.0)
서비스직	-6248 (1546.4) **	236 (2082.2)	-2157 (1591.7)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고졸	-3507 (1115.9) **	8470 (1502.7) **	1821 (1148.7)
전문대졸	-3637 (1940.9)	9614 (2613.4) **	679 (1997.8)
대졸	-4620 (1674.0) **	13863 (2254.1) **	4263 (1723.1) **
대학원이상	-6761 (2835.8) **	17662 (3818.6) **	11847 (2919.0) **
자가소유: (임대)			
자가	8305 (921.4) **	6911 (1240.7) **	2812 (948.4) **
주택자금상환여부: (무)			
자금상환 중	-2996 (1074.8) **	-863 (1447.3)	-650 (1106.3)
거주지역: (중소도시)			
서울	1380 (1258.6)	11006 (1694.7) **	7832 (1295.5) **
광역시	551 (846.4)	4002 (1139.7) **	1909 (871.2) **
주부취업: (비맞벌이)			
맞벌이	-4643 (924.8) **	-14472 (1245.3) **	-7899 (951.9) **
가구주성별: (여성가장) 남성			
가장	4787 (1385.9) **	21472 (1866.2) **	10731 (1426.6) **
미취학 자녀: (무)			
미취학 자녀유	-5777 (1047.5) **	489 (1410.5)	5564 (1078.2) **
중고생자녀: (무)			
중고생자녀유	2918 (723.6) **	4048 (974.4) **	1842 (744.8) **
상수항	8013 (3481) **	-33769 (4687) **	2369 (3583)
F 값	101.4	191.6	94.7
R ²	.17	.27	.16

a : 괄호 안은 비교집단

* p < .05, ** p < .01

나고, 부식 및 기호식품에 대한 지출은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나 가구원 수가 어느 수에 이르면 이들 비목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식비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나 가구원 수가 약 7.5명 정도 되면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기호식품의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다가 가구원 수가 약 8.3명 정도 되면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호식품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 부식, 기호식품 등 3개의 비목 모두에서 지출이 대체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식의 경우 50~59세에 가장 큰 폭의 지출을 하였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계는 20대가계 보다 주식과 기호식품에 대한 지출이 각각 월평균 26,212원, 14,280원 더 많았다.

가구주 직업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식에 대한 지출은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노무직/기타 종사자 보다 더 적었고, 부식에 대한 지출은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노무직/기타 종사자 보다 각각 8,293원, 236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력을 보면 주식에 대한 지출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액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식의 경우는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학원이상가계는 중졸가계에 비해 월평균 17,662원 더 부식에 지출하였다. 또한, 기호식품의 경우는 중졸가계에 비해 대졸 및 대학원이상가계가 한달에 각각 4,263원과 11,847원을 추가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임대한 가계에 비해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비 등 모든 비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자금상환을 하고 있는 가계는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주식비에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계는 중소도시 가계 보다 각각 부식에 더 많이 지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 가계는 비취업주부 가계에 비해 주식, 부식, 기호식품 모두에서 지출이 적었다. 특히 부식비 지출의 경우 취업주부가계는 비취업주부가계에 비해 월평균 14,472원을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지출비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남성가장가계는 여성가장가계보다 이들 3개의 비목 모두에서 지출이 많았는데 특히 부식비지출에서 두 집단간의 지출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주식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나, 부식 및 기호식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고생자녀의 존재는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비 등 세 비목 모두에서 각각 2,918원, 4,048원, 1,842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2,323근로자가계를 추출하여 연구대상가계로 사용하였다. 식료품비 소비지출규모는 총식생활비,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비, 외식비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고,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가계의 월평균식생활비 지출액은 347,897원이며 식료품비로 239,829원(식생활비의 68.9%)을, 외식비로 107,969원(31.1%)을 지출하였다. 가계소득을 비롯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름에 따라 가계의 식생활비지출은 차이를 보였으나, 세부지출비목에 따라 가계특성과의 관계 정도와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비목은 외식비로 가계소득이 117만원 미만인 가계의 지출이 52,856원에 비해 월평균 가계소득이 225만원 이상인 가계는 이의 3.74배에 해당하는 197,939원을 외식비에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 식생활비목은 주식비로 2인가계의 36,935원에 비해 6인 이상가계는 이의 2.46배에 해당하는 90,958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의 증가는 외식비지출, 가구원 수의 증가는 주식비 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 수와 주식비 지출과의 관계는 가계동등성지수의 산출과 관련이 높다. 김경자(1997)의 연구에서 6인 이상가구의 동등성지수는 2인가계의 2.4배정도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 수치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두 집단간의 주식비 지출의 비율 2.46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은 주식비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결과로,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복지와 관련한 표준의 산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여타 가계특성이 조절한 상태에서의 개별 가계특성의 식생활비지출에 대한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계소득, 가구원 수를 비롯한 고려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타 가계특성이 동일한 상태에서 식료품비와 외식비는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식료품과 외식비에 대한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 보다 식료품 산업 및 외식산업이 활발하여 가계가 식료품 지출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주택대출금 상환이 있는 가계는 식료품에서 대출금 상환이 없는 가계보다 지출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이들 가계가 지출하는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가처분 자원의 부족이 필수재 부분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남성이장가계가 여성가장가계에 비해 가계의 식료품 지출규모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장이 없는 경우 가계의 식생활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연령은 식생활비 지출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외식비 지출은 적었으며, 반면 중고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주식비, 부식비, 기호식품 등 식료품 전 세부비목에 대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계의 경우 교육비 등의 소비지출이 많음에 따라 선택적 성격이 강한 외식비 지출은 도리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료품비의 지출 수요가 가구원 수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동등성지수를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특성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계소득증가에 따라 주식, 부식, 기호식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나, 이 중 부식에 대한 지출이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율도 늘어나 가계소득상승에 따른 부식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을 시사한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모든 식품비목에 대한 지출이 컸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식에 대한 지출은 적고 반면 부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비 지출은 다양한 음식섭취를 통한 가구원들의 식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소득수준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 식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식생활비 지출이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식생활비의 세부비목의 특성에 따라 소비에 대한 요인들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생활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부비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구원의 성별, 연령 등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모델에 포함함으로써 가계특성이 변화함에 따른 식생활비 수요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구원 수와 식생활비와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표준생계비나 빈곤선 도출을 위한 연구로까지 연결시켜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경자(1997). 도시가계 생계비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37-148.
- 김기욱,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2.
- 김미향, 한재숙(1988).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소득을 중심으로(1975~1985년). 대한가정학회지, 26(1), 109-122.
- 류병서(1993). 외식의 결정요인. 한국경제, 20(1), 259-275.
- 문숙재, 정순희(1995). 소비지출 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 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5.
- 배연수, 한재숙, 김정숙(1990). 가계분석에 있어서 Engel Curve의 함수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87-101.
- 유두련(1991).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연구, 2(2), 41-54.
- 윤정혜(1984).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1963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85-101.
- 정용선(1993). 소득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 도시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1975-1990). 소비자학연구, 4(1), 59-73.
- 최은숙(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 소비자학연구, 1(1), 127-158.
- 통계청(1997). 도시가계연보.
- 통계청(1997). 96가계소비실태조사 결과: 가구의 생활수준 및 실태(요약).
- Abdel-Ghany M. & Schrimper, R. (1978). Food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Education of the Homemak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4), 283-292.
- Axelsson, M. & Penfield M. (1983).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Expenditures of Elderly Persons Living Alone. *Home Economics Research*, 12(2), 228-236.
- Chen, Y., & Chu, K. (1982).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The Effect of Age of Family Head. *The Journal of Family Issues*, 3, 233-250.
- Dardis, R., Derrick, F., and Lehfeld, A. (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212-222.
- Douglas, E. (1980).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Proceedings of 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41-47.
- Forsyth, F. (196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ize and Family Expenditur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s*, 123, 367-393.
- Foster, A. (1986). Wife's Education and Family Food Expenditures. I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s' Annual Conference*, Columbia, 192-195.
- Foster, A., Abdel-Ghany, M., & Ferguson, C. (1981). Wife's Employment- Its Influence on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 115-124.
- Lee, F. & Phillips, K. (1971).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Farm and Nonfarm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3, 573-582.
- Nayga, R. Jr. (1995). Presence of Children and Household Food Expenditures at Home and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3), 235-245.
- Nayga, R. Jr. (1995). Household Expenditure

-
- on Poultry and Seafood in the U. S. D. A.: A Cross-Sectiona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1), 1-10.
- Ritzmann, L. J. (1982). Household Size and Prices Paid for Food. *Family Economics Review*, 4, 27-31.
- Toivonen, T. (1997). Food and Social Clas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21, 329-347.
- Volker, C.B. & Winter, M. (1989). Primary Household Production of Food, Food Expenditures, and Reported Adequacy of Foo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1), 32-46.